

담양 대나무박물관, 군민·관광객 위한 문화공간 변신

동아리연습실·문화교실 등 장소 학습동아리·6개 단체 80명 사용 '찾아가는 죽공예 교실' 교육 운영 담양도서관·문화원 연계 프로그램

담양군에 자리한 한국대나무박물관이 기존 카페동 리모델링을 마치고 군민동아리 연습공간, 문화교실, 갤러리 등 생활문화 복합공간으로 탈바꿈한다.

26일 담양군에 따르면 한국대나무박물관은 1998년 개관 이후 대나무공예품 전시, 만남의 광장 등 연 4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대나무공예 문화탐방 명소다.

하지만 매년 박물관의 전반적인 방문객 수는 줄어들고 유지비가 올라가자 담양군은 박물관에 대한 인식 제고와 함께 박물관의 새로운 역할을 고민했다.

고민 끝에 단순한 대나무공예 전시 기능에 치중된 운영에서 벗어나 지역민과 관광객에게 학습 체험의 장이자 대나무 숲 속 휴식 공간으로 바꾸고 기존 유휴공간을 재구성하기로 했다.

우선 박물관 내 학습공간을 무료 개방한다. 박물관 내 학습공간은 3개소로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시범적으로 운영되며 기관단체의 교육 장소, 5인 이상 학습동아리의 연습 공간으로 주야간 무료 개방한다.

사용 신청은 한국대나무박물관 방문 상담을 통해 배정되며, 자세한 설명은 박물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단순 전시를 넘어 이용자 중심의 체험 학습으로 전환하고자 기관단체, 대나무공예 체험 교육을 신청받고 있으며 박물관 체험교육장 또는 찾아가는 죽공예 교



담양대나무박물관 전경.

담양군 제공

실을 통해 교육도 운영한다.

대나무박물관의 특성화 프로그램 '명상요가 문화강좌'의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향후 담양도서관과 담양문화원 프로그램도 연계해 나갈 계획이다.

담양군 관계자는 "기존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새롭게 요구되는 박물관의 역할에 부응하는 지역민을 위한 생활문화 공간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담양=신재현 기자

장성군, 황룡강 가을꽃 축제 10월 5일부터 13일까지

장성군 가을축제 '장성 황룡강 가을꽃 축제'가 오는 10월5일부터 13일까지 황룡강 일원에서 펼쳐진다.

26일 장성군에 따르면 올해 축제의 주제는 '오색연화'로 전국적으로 꽃 축제 붐을 일으킨 '꽃강 축제'의 원조 답게 꽃 자체를 핵심 콘텐츠로 앞세웠다.

축제장은 △문화존 △불먹존 △여유존 △장성존 △성장존 5개 구역으로 나뉜다. 중앙무대인 황룡정원 인근 '문화존'에선 5일 개막식, 관객들이 함께 참여하는 플라워뷰티쇼 등 주요 행사가 열린다.

6일 가든포크콘서트에는 서영은, 유리상자, 여행스케치가 출연한다. 4개국이 참여하는 글로벌 공연과 인디밴드들의 무대인 9일 '오색연화 콘서트'도 이목을 끈다.

11일에는 장성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청소년평화콘서트, 12일 전남제천 성공기원음악회도 이어진다. 1부는 뮤지컬·팝페라 공연, 2부는 김희재, 예녹 등이 출연하는 트로트 음악회가 기다린다. 축제 마지막 날인 13일에는 내년 축제를 기약하는 폐막공연 무대가 대미를 장식한다.

'불타는 떡거리존'의 줄임말인 '불먹존'은 장성에서만 맛볼 수 있는 음식들로 가득한 공간이다. 특제 가든바비큐부터 글로벌푸드, 로컬음식, 농특산물장터 등이 풍성하게 마련된다.

문화대교 인근 '여유존'은 캠핑에 피크닉을 더해 가볍게 머물며 쉴 수 있는 '캠프닉', 버드나무 그늘 아래에서 차 한 잔의 여유를 만끽하는 '가든티타임', 꽃으로 예술을 표현하는 '플라워아트', 요가, 전시 프로그램 등이 운영된다.

'장성존'은 강 건너편 힐링허브정원 방면에 있다. '놀이 한마당'과 예술작품 전시 등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어린이와 함께 온 가족이라면 '성장존'이 있는 황미리랜드가 안성맞춤이다. 놀이터 인근에서 꼬마 댄서들을 위한 '랜덤 플레이 댄스', 마술 공연,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장성=유봉현 기자

진드기 감염 예방수칙 준수 당부 고흥군, 외출 후 즉시 목욕·환복 등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가을철 농작업 및 야외 활동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우리동네 감염병 예방 홍보대사 교육'을 통해 군민들에게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수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은 법정 3급 감염병으로 쯔쯔가무시증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SFTS) 등의 대표적인 질환이 있으며 가을철 수확 작업 등으로 농작업 시간이 증가하면서 농업인들에게 자주 발생하고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은 예방백신과 치료제가 없으므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야외 작업 시 긴 옷을 입고, 풀밭에서는 옷을 벗어놓지 않으며 용변을 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외출 후 즉시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는 등의 예방수칙을 지키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이다.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농업인들이 텃밭이나 농작업 중에 감염되는 경우가 많으며 9월부터 11월 사이가 진드기 매개 질환의 발생 시기로 농업인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송민섭 기자

장애인복지관 배식 봉사 여수시 미평동 주민자치회

여수시 미평동 주민자치회(회장 강형국)가 지난 23일 여수시장예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봉사 활동을 펼쳤다.

26일 여수시 미평동 주민자치회에 따르면 이날 주민자치회 위원 22명은 장애인 및 활동지원사 등 250여 명의 따뜻한 한 끼 식사를 위해 식재료를 준비하고 중식을 대접했다.

미평동 주민자치회는 앞서 지난 2017년 1월 여수시장예인종합복지관과 자매결연을 맺고 매달 마지막 주 월요일마다 복지관에서 재료 준비부터 배식, 설거지, 청소까지 봉사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강형국 회장은 "봉사는 남을 위하기도 하지만, 이를 통해 얻어지는 뿌듯함을 보면 결국은 나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봉사 활동으로 우리 지역을 온정이 넘치는 마을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수=이경기 기자

'도전 청림골든벨' 퀴즈 대회 보성군, 공직자 청렴 의식 강화

보성군은 지난 24일 군청 4층 대회의실에서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4년 '도전! 청림 골든벨' 서바이벌 퀴즈대회를 개최해 공직자 청렴 의식을 강화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로 2회차를 맞은 '도전! 청림골든벨'은 참여형 교육으로 직원들의 반부패 법령과 청렴 지식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청렴 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청림 골든벨은 청렴 상식 문제를 스마트 리모컨을 활용해 정답을 맞히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서바이벌 퀴즈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35개 부서의 간부 공무원부터 신규 공무원까지 다양한 직급의 직원 200여 명이 참여했다.

퀴즈는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공재정환수법 등 반부패·공직윤리 관련 법령과 일반상식으로 구성돼 출제됐다.

치열한 접전 끝에 이날 청림의 종은 문덕면 고은형 주무관이 올렸고 부서별 단체전에서는 해양수산과가 최종 우승을 차지했다.

송민섭 기자



여수시 미평동 주민자치회 회원들이 식기류를 세척하고 있다. 미평동 주민자치회는 지난 23일 여수시장예인종합복지관을 찾아 봉사 활동을 펼쳤다.

여수시 제공

제1회 녹차수도 보성 다 청년 페스티벌

27일부터 보성공설운동장서

보성군은 청년의 꿈과 열정을 담은 '제1회 녹차수도 보성 다 청년 페스티벌'이 오는 27일과 28일 이틀간 보성공설운동장 일원에서 성대하게 개최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제1회 녹차수도 보성 다 청년 페스티벌'은 모든 청년들이 주인공이 돼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마련했다. 주목할 만한 프로그램은 △청년·청소년 댄스&밴드 공연, △뉴트로 콘서트, △대학가요제 리턴즈, △타임캡슐 EDM 파티다.

27일 오후 4시부터 시작되는 청년·청소년 댄스&밴드 공연은 지역 내 다양한 대학과 청소년 댄스 스쿨에서 선발된 팀들이 참여해 자신들만의 독특한 안무와 퍼

포먼스를 선보인다. 각 팀은 자신들의 음악적 스타일과 춤 실력을 바탕으로 경쟁하며 관객들의 호응을 이끌어 낼 예정이다. K-POP, 힙합, 스트리트 댄스 등 다양한 댄스 장르가 표현돼, 청년들의 다채로운 에너지와 창의성이 돋보이는 무대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감으로 모이고 있다.

심사위원단은 전문 안무가와 음악 프로듀서로 구성돼 있으며, 최우수 팀에게는 상금과 다음 페스티벌에서의 특별 출연 기회가 주어진다.

이날 오후 7시부터 진행되는 뉴트로 콘서트는 김승민, 래원, 경서예지, 김종국 등 인기 가수들이 출연해 축제의 밤을 뜨겁게 달굴 예정이다. 이들은 1990년대 히트곡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무대를 선보이며, 관객들에게 추억의 향수를 불러 일으키며 온 세대가 어울릴 수 있는 신선

한 음악적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신예 아티스트들의 특별 공연도 함께 진행돼 젊은 음악인들의 재능을 발휘할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8일 오후 4시 열리는 대학가요제 리턴즈는 1990년대 대학가요제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프로그램으로 참가 청년들이 과거와 현재의 음악을 접목한 공연을 펼친다. 참가자들은 자신만의 해석으로 명곡들을 재창조해 관객들에게 새로운 음악적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페스티벌의 마지막은 타임캡슐 EDM 파티가 청년들의 열정과 함께 화려하게 마무리한다. DJ 김성수, 채연, DJ 이하늘 등 유명 DJ들이 참여해 축제의 열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린다.

파티가 끝나면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담은 타임캡슐을 묻을 예정이다. 추후 열릴 날을 기억하며 청년들의 미래에 대한 기대와 염원을 담아 저장할 계획이다.

송민섭 기자

무안스포츠파크 실내수영장, 아쿠아로빅 수강생 모집

10월 10일까지 접수

무안군은 스포츠파크 실내수영장 신규 강습 프로그램 '아쿠아로빅 건강 체조 교실' 10월 수강생을 모집한다.

아쿠아로빅은 신나는 음악과 함께 물의 저항과 부력을 이용해 움직이는 수중

체조로서 관절보호·체중감량·유연성 향상 등 전반적인 신체기능 향상 효과가 있어 장·노년층에게 적극 권장하고 있는 운동이다.

군은 실내수영장의 주중 주 이용 연령층인 주부·시니어층의 체육활동 증진과 수영장 강습 프로그램 다양화를 위해 강

좌를 개설하여 연말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프로그램은 10월11일부터 매주 2회(수·금) 오전 10시30분부터 11시20분까지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무안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확인하면 된다.

접수는 10월10일까지 전화(061-452-9898) 및 스포츠파크 실내수영장 안내 데스크에서 현장 접수하며 수강생은 25명으로 선착순 모집한다. 무안=김행언 기자